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노

에베소서 4:26-27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를 내는 것과 죄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죄에 가까워지게 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분노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죄와 같이 가려는 특성이 강해서 마귀가 이를 틈타려 합니다.

나의 분노의 그릇 이해하기

각자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릇의 양과 모양은 다릅니다. 어느정도 잘 참다가, 넘치게 되려는 순간 우리는 그 분노의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히 그 분노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얻은 깊은 상처들은 분노 그릇 바닥의 덩어리가 됩니다. 분노 그릇의 용량이 줄어들고, 분노를 쏟아내도 여전히 그 그릇에 붙어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방해를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함부로 화내고 건강하게 화내지 못하면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삶의 공동체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분노의 그릇을 비우세요

우리는 화를 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가족들과 혹은 교회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격한 감정 때문에 말을 격하게 하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 중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분노로 인해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계획된 복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성이 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이 지배하지 않는 분노가 그리스도인의 분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현명하게 화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려해서 분노를 표출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낼 수록 그 분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분노로 내뱉어서는 안됩니다. 분노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분노 후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낄 때 마귀는 그 틈을 탈 것입니다. 분노의 표현 방법이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